

# 한국전쟁기 남한 내 적색 빨치산의 재건과 소멸(1950.10.5-1954.4.5)

전남 총사령부와 6개 지구를 중심으로

金泳燁\*

- |                      |                    |
|----------------------|--------------------|
| 1. 머리말               | 4) 불갑산지구           |
| 2. 한국전쟁과 빨치산         | 5) 모후산지구           |
| 3. 조선인민유격대 전남총사령부 창설 | 6) 백운산지구           |
| 4. 6개 지구 조직          | 5. 빨치산의 승리와 패배와 궤멸 |
| 1) 광주지구              | 6. 빨치산 궤멸의 원인      |
| 2) 노령지구              | 7. 맺음말             |
| 3) 유치지구              |                    |

## 1. 머리말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은<sup>1)</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sup>2)</sup>의 인민군이 남북분단선인 38선을 넘어 대한민국(‘한국’으로 약칭)을 공격해옴으로써

---

\*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1) 전쟁의 명칭을 놓고 ‘6·25전쟁’, ‘6·25사변’, ‘한국전쟁’, ‘조선전쟁’, ‘Korean War’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6·25전쟁’ 또는 ‘6·25사변’은 남북한 양쪽에서 흔히 사용한다. ‘한국전쟁’은 미국이나 서구 쪽에서 사용하는 ‘Korean War’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국사교과서의 개정작업을 맡고 있는 교육부의 ‘근·현대사연구팀(李炫熙·徐仲錫·鄭在貞)’은 ‘6·25전쟁’을 ‘한국전쟁’으로 표기하기로 했다(《동아일보》 1994년 1월 6일자). 북한이나 중국, 일본은 당초부터 ‘조선전쟁’이라 불려왔던 터라 ‘Korean War’도 그대로 ‘조선전쟁’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필자는 ‘한국전쟁(Korean War)’을 따르기로 했다.
- 2) 현재 북한의 공식명칭으로, 이 글에서는 ‘인민공화국’ 또는 ‘북쪽 정권’이라 줄여 사용하도록 한다.

벌어진 민족상잔의 비극이다.<sup>3)</sup> 이 전쟁의 성격을 두고 미국 제국주의와 소련 제국주의의 충돌 내지 대리전쟁이라는 견해와 조국해방전쟁 또는 침략전쟁이라는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개전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게 낙동강까지 밀린 남쪽군<sup>4)</sup>의 반격으로 퇴각로를 차단당한 인민군 패잔병과 당 요원 및 지방좌익들이 남쪽의 산으로 들어가 한국 체제에 도전하는 빨치산이 되었다.<sup>5)</sup> 이른바 인민공화국

- 
- 3) 한국전쟁의 발단이 ‘남침’인가(한국 등 서방 측 주장) 아니면 ‘북침’인가(북한 등 구 공산권 주장)의 논란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서방 측 일부 학자 특히 진보적 학자 중에는 ‘남침유도’설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2*, Princeton Univ. Press, 1990, pp. 568-621). 또 김희일은 “장기간에 걸친 전쟁 준비를 끝마친 미제국주의자는 1950년 6월 25일 이른 아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며 북침설을 제시하고 있다(김희일, 『침략의 역사 항전의 역사』, 한, 1991, 205쪽). 그러나 지금은 ‘남침’설이 국제적 정설로 돼 있다. 우선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소련 공산당 제1 서기 및 수상을 지냈던 니키타 흐루시초프(1894-1971)는 소련의 개방정책에 따라 그의 사후 공개된 테이프에 담겨진 회고록 일명 「봉인되었던 증언」에서 “한국전쟁은 김일성 동지가 개시하였고 스탈린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사실상 거의 모두를—지원했다”고 술회했다(*Khrushchev Remembers—The Glasnost Tapes*, Little and Brown Company, 1990, p. 144). 또한 박명림은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스탈린과 모택동의 동의를 얻어 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권, 나남출판, 1996, 133-175쪽). 한편 러시아에서 태어나 하바로프스크 공산대학을 졸업하고 소련군에서 상위로 복무한 후 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에 참여하고 내무성 부상 겸 정치국장, 군사정전위원회 인민공화국 측 수석위원을 지낸 강상호(1910-2000)는 1992년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국제안보 및 군축문제센터가 발행한 『믿을 수 없는 동반자들(Uncertain Partners)—스탈린·마오쩌둥(毛澤東)과 한국전쟁』에서 한국전쟁 전후의 북쪽 사정을 증언하며 “한국전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개전 당시 조선노동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장이었던 그는 “전쟁 발발 직후 강원도 전선을 시찰하던 중 한국군의 진지에 사용되지 않은 포탄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강상호는 1959년 말 소련과의 숙청을 피해 소련으로 망명한 후 2000년 12월 15일 91세를 일기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운명했다(《동아일보》 2000년 12월 18일자).
- 4) 한국군과 미국군을 비롯한 16개 유엔군을 뜻한다. 반대로 ‘북쪽군’은 인민군과 중국군(중공군)을 말한다.
- 5) 빨치산(partisan or partizan)이란 말은 프랑스의 ‘파르티(Parti)’, 즉 徒黨·同志

의 戰士로서 이들은 1950년 10월 5일, ‘조선인민유격대 전남총사령부’가 발족되는 시기부터 완전히 붕괴되는 1954년 4월 5일까지<sup>6)</sup> 3년 6개월 동안 투

가 그 어원으로, 게릴라(*guerrilla* or *guerriller*)로 부르기도 한다. 게릴라는 불세비키 혁명을 성공시킨 소련에서 빨치산으로 도입·변형시켜 ‘타국의 침략자에 저항하는 무장 인민투쟁으로서 적의 후방에서 인원과 기자재를 섬멸하는 한편 통신수단과 그밖의 것을 파괴하기 위한 독립된 부대’라고 하기도 한다(이기봉, 『빨치산의 진실』, 다나, 1992, 16쪽). 또한 ‘적이 점령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군사조직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 『한국전쟁과 일본의 군사적 활동』,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148쪽). 빨치산이 정형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독일에 침략 당한 유고슬라비아를 구하기 위해 맹활약했던 티토의 빨치산 투쟁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식민지 지배에 항거했던 국내외 의병활동이나 독립군 투쟁이 해당된다. 한편 유격전술로 국민당 정부군에 대항하며 중국공산당을 이끌던 모택동은 빨치산 대신 ‘인민유격대(*people's guerriller*)’라고 불렀다(R. B. 에스프레이 저, 일월서각 편집부 역, 『세계게릴라전사』 2권, 일월서각, 1989, 55쪽). 이들 ‘인민유격대’에 대해 장개석 정부측에서는 ‘共產主義匪賊’이라 불렀고 줄여서 ‘共匪’라 했다.

북쪽의 인민공화국은 인민군 및 빨치산의 원류를 김일성의 안도현 항일유격대에 두고 있다. 김일성은 혜산진 부근 압록강 마을 普天堡의 일본 국경수비대 및 경찰관주재소를 기습·성공한 이래, 1940년 3월 25일 홍기하전투를 마지막으로 소련 연해주로 이동했다(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140-179쪽; 《동아일보》 1936년 6월 9일자; 和田春樹, 『金日成과 滿洲抗日戰爭』, 平凡社, 東京, 1992, 184-185쪽; 姜在彦, 『滿洲의 朝鮮팔치산』, 靑木書店, 東京, 1993, 136쪽). 지금도 북쪽정권은 당원뿐만 아니라 인민들에게까지 이 같은 ‘김일성장군의 위업’을 받들어 유격대원 신분으로 태어나 학습하고 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외국에서는 인민공화국을 ‘게릴라국가’ 또는 ‘유격국가’라 지칭하고 있다(스칼라피나·이정식 공저(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돌베개, 899-914쪽; Adrian Buzo, *The Guerilla Dynasty*, Allen & Unwin, 1999, pp. 1-27; 和田春樹, 『北朝鮮-遊擊國家』, 岩波書店, 1998, 序文).

- 6) 1954년 4월 5일 김선우 조선로동당 전남도당위원장이 한국군에 의해 백운산에서 사살됨으로써 공식적인 지하당조직은 와해된다. 이 무렵 지리산을 비롯한 각지의 빨치산들도 소탕되어 사실상 남한 내의 빨치산 활동은 1955년 봄으로 종식되고 1955년 4월 1일 지리산의 입산통제가 해제된다. 당시 남한 내에서 은거하고 있는 빨치산은 59명, 1956년 12월 31일에는 43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빨치산은 1963년 11월 12일 지리산 기슭인 경남 산청군 삼장면 상내원리에서 李洪伊가 사살되고, 鄭順德이 생포됨으로써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백선엽, 『實錄 智異山』, 고려원, 1992, 372쪽).

쟁하다가 대한민국 군과 경찰에 의해 사살되거나 체포돼 즉결처분되기도 하고 혹은 사형 또는 유기형을 선고받아 처형되거나 복역했다.

이 글은 당초 연구자가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2001, 사회문화원)을 연구할 당시 민간인 학살의 빌미를 제공한 좌익 ‘빨치산’ 또는 ‘공비’의 활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구명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던 데서 비롯됐다. 이는 곧 한국전쟁 기간중 민간인 희생에 대한 연구의 전제로서 대한민국 체제에 도전하던 빨치산들의 활동과 소멸과정을 천착함으로써 민족상잔을 겪으며 전개된 어둡고 감춰진 역사를 밝혀내 한국현대사의 실상을 정확하게 조명해보고자 기획된 것이다.<sup>7)</sup>

- 
- 7) 한국전쟁 기간중 희생된 민간인은 100만 명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창립 선언문, 2000년 9월 7일, 기독교연합회관). 1950년 6월 25일부터 북쪽에 의한 남한점령지역에서의 집단 피살자수는 남한정부의 공식 추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군경을 제외한 비전투원에게 가해진 것으로 사망자 244,663명, 학살자 128,936명, 부상자 229,625명, 행방불명자 303,212명, 납치자 154,532명으로 도합 10,060,969명의 인명피해를 기록했다(내무부 치안국, 『경찰십년사』, 1958, 265-266쪽 참조;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 《法學》 제41권 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각주 6에서 재인용). 여기서 부상자 229,625명을 제외한 831,343명이 실제 인명피해자다. 또 1952년 3월 공보처 통계국이 조사한 결과 전쟁 기간중 인명피해는 사망 23만 6,475명, 학살 12만 2,799명, 행방불명 29만 8,175명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공보처 통계국, 『대한민국 통계연감』, 1953, 321-322쪽). 전시 중에 작성된 이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지는 알 수 없으나, 납치 8만 2,959명을 합산한다면 74만여 명이다. 여기에 이 통계가 작성된 이후인 1952년 4월부터 1953년 7월 휴전시까지 소탕된 공비와 학살된 양민, 좌익에 의한 피해자, 누락 가능성이 있는 보도연맹원 피해자를 포함시킨다면 100만 명의 인명피해 추정이 가능하다. 또한 1994년 발간된 전라북도의 회보고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의 민간인 사상자가 99만여 명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기록하고 있어 100만여 명 피해설을 뒷받침하고 있다(전라북도의회 6·25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특별위원회, 『6·25 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1994, 14쪽). 특히 2001년 6월 24일 미국 뉴욕 인터치센터에서 열린 상징적 민간법정인 ‘코리아 국제전법 재판’에서 수석검사로 나선 클라크 전 미국 법무장관은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30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했다’며 300만 명 설을 제기하기도 했다(《한겨레신문》 2001년 6월 25일자). 이는 남북한을 합친 숫자임은 물론이다. 또한 2000년 6월 13일자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전쟁 당시 전체 인명 피해는 500만 명에 달하며 그

이 글의 범위는 조선로동당 전남도당 및 조선인민유격대 전남총사령부와 6개 지구에 한하기로 했다. 한국 영역 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빨치산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연구자가 청취한 증언자가 모두 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sup>8)</sup> 이 글의 시기는 한때 전남지역에서 인공체제에 참여했던 좌익들이 대한민국 체제로 환원된 후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 부대로 재편하는 1950년 10월 5일부터 공식적으로 궤멸되는 1954년 4월 5일까지로 했다.<sup>9)</sup>

이 글은 1954년 군 당국이 발간한 『공비토벌사』 및 토벌군 지휘관을 두 차례나 역임한 백선엽의 『實錄 智異山』을 주축으로 하고 일부 빨치산들의 회고록과 학자들의 논문 및 현장 참여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했다.

## 2. 한국전쟁과 빨치산

해방 후 한반도에 좌익 빨치산 혹은 인민유격대가 등장한 것은 남북분단으로 인해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화되면서부터다. 1946년 10월 “대구를 비롯한

---

가운데 민간인 피해자 수는 25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했다(조현연, 『한국 현대정치의 악몽—국가폭력』, 책세상, 2000, 53쪽에서 재인용).

- 8) 증언자 중 일부는 빨치산 생존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신원노출을 기피하고 있어 영문약자(예, ABC)로 표현했다. 인젠가 그들의 신원이 온전하게 밝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9) ‘빨치산’ 활동은 인민공화국 즉 북측에서만 전개한 것이 아니라, 우익측인 한국군과 미군측에서도 벌였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군은 한국전쟁 전 황해도 구월산에서 빨치산 작전을 벌였고 한국전쟁 전쟁기간에는 북쪽군의 후방 교란을 목적으로 ‘8240부대’, ‘동키부대’, ‘백호부대’ 등의 유격부대를 구월산을 비롯한 황해·평남·평북의 서해안 내륙에 투입했었다. 이 유격부대를 ‘빨치산’이라 호칭했었다. 바꿔 말하면 ‘빨치산’이라는 호칭은 좌익의 전용어가 아니라 우익의 군대에서도 사용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좌익 빨치산을 지칭하고 있음은 물론이다(Ben S. Malcom, *White Tigers-My Secret War North Korea, Brassey's*, 1996; 군사편찬연구소 역, 『백호부대, 유격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군이 사용한 게릴라는 ‘좌익빨치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적색 빨치산과는 본질 면에서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을 밝혀둔다.

영남 일대를 피로 물들인 좌익 폭도들과 그들을 추수(追隨)한 노동자 농민들 가운데 일부가 태백·소백산맥 주변 산악으로 숨어들어 이른바 야산대 활동을 시작한 것이 그 효시가 된다.”<sup>10)</sup> ‘남한의 빨치산들은 10월폭동에서 2·7사건, 4·3사건, 여순사건 등 6·25에 이르기까지 해방 후의 역사 중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자꾸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sup>11)</sup> 그러니까 1946년 10월항쟁 이후 남로당이 불법화되면서 산으로 들어간 ‘야산대’가 남쪽에서의 빨치산 효시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곡성·구례 야산대가 4·3사건 후 무장유격대로 탈바꿈한 후 1948년 11월,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4연대 반란군에<sup>12)</sup> 흡수돼 지리산의 문수골과 피아골에서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빨치산 활동이 시작되었다.<sup>13)</sup>

특히 북쪽은 1949년 7월 남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빨치산 활동을 일원적으로 지휘·지원하는 기구로서 ‘조선인민유격대’를 창설했다. 남로당계의 박헌영·이승엽이 지휘하는 조선인민유격대는 향후 남쪽 빨치산의 계통적 총지휘부가 된다. 이를 계기로 남쪽 빨치산은 제1병단(오대산지구-이호제)·제2병단(지리산지구-이현상)·제3병단(태백산지구-김달삼과 남도부)으로 재편된 다음 평양의 강동정치학원<sup>14)</sup>에서 배출된 유격대원을 비롯하여 2,400여 명이 1948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10회에 걸쳐 남파되었다. 이들은 개전 직전인 1950년 6월까지 1,700여 명이 남아 활동하다가<sup>15)</sup> 한국전쟁기 인공체제

10) 이기봉, 『빨치산의 진실』, 도서출판 다나, 1992, 15쪽.

11)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1988년 가을호, 341쪽, 이태의 강연내용.

12) 1946년 10월 19일 여수의 육군 제14연대 반란사건에 대하여 ‘반란’, ‘봉기’, ‘항쟁’ 등 개념 논쟁이 많다. 그러나 14연대 사건은 ‘군’이라는 특수조직 내에서 발생한 하극상사건이기 때문에 ‘반란’이라는 개념이 타당하다.

13) 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민학살』, 사회문화원, 2001, 297-298쪽.

14) 박헌영계의 남로당이 평양 강동군에 창설한 정치학원. 주로 남에서 월북한 남로당 간부 및 당원을 수용해 남한의 적화공작 차원의 간첩 및 유격대로 남파시키기 위해 유격전 및 정치훈련을 시킨 정치훈련소였다. 훈련과정은 군사반이 2개월, 정치반이 6개월이다. 이들 간첩 및 유격대원들은 남한에 침투되기 전, 2차로 38선에 인접한 동해안의 ‘양양유격대훈련소’에서 재훈련을 받았다. 나중에 개릴라 요원 양성기관으로 개칭되며, 1949년 9월 현재 1,200명이 양성되었다(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43쪽; 김학준, 『북한 50년사』, 두산동아, 1996, 139쪽).

에 흡수되었다.<sup>16)</sup>

북쪽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은 인민군의 남진에 따라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려 대한민국 임시수도 부산의 함락이 임박해 이른바 북과 남의 통일이 목전에 다다른 듯했다. 그러나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한 한국군 및 유엔군<sup>17)</sup>이 그동안 묶여 있던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여 북진하던 남쪽군과 9월 27일 평택군 송탄면 서정리(현 평택시 송탄읍 서정동) 부근에서 합류하면서 이루어진 9·28 수복에 따라 그 이남(충청·호남·영남지역)까지 진출했던 인민군 및 당 요원들의 퇴로가 차단되었다. 이 중 주력부대는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통해 북상하고 나머지 일부 병력과 당 요원들이 패잔병이 되어 남쪽의 산악지대로 들어갔다.<sup>18)</sup> 이들은 인공체제<sup>19)</sup>에 동참했던 해당지역 좌익들과 함께 무장유격대, 즉 빨치산을 편성하여 한국군과 경찰의 후방기지 교란을 위한 유격전을 펼치면서 '제2전선'을 형성했다.<sup>20)</sup> 당초 8만 명으로 추

15) 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 150쪽.

16) 한국전쟁 이전 북쪽의 빨치산 조직은 북에서 직접 훈련시켜 남파한 조직과 지리산 등에서 활동하던 남로당계의 지구당 빨치산 조직으로 양분되었다는 설이 있다(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 149쪽).

17) 북쪽의 인민공화국은 '유엔군'이라는 호칭에 거부반응을 나타낸다. 유엔군은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의 제국주의적 간섭군으로 보기 때문이다(라주바예프, 『6·25 전쟁보고서』 1권, 269쪽). 그러나 유엔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회의의 결의를 거쳐 파견된 군대이기 때문에 '유엔군'이라는 호칭은 타당하다. 일본은 '國連軍' 또는 '米韓軍'이라고도 부른다(和田春樹, 『朝鮮戰爭全史』, 217쪽).

1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48쪽; 이때 좌익들이 9월 28일 또는 10월 어느날 동시에 입산한 것은 아니다. 한국군과 경찰의 수복 작전 시기와 좌익들의 입산시기는 비례했다. 1950년 10월을 시작으로 11월에 입산한 경우도 많다. 심지어 전남 장성군 삼서면의 좌익들은 1950년 12월 11일 입산하기도 하였다.

19) 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은 남하하면서 한국군이 후퇴하는 지역에 자신들의 통치지역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인천상륙작전 이후 한국 체제로 환원되는 시기까지를 남쪽에서는 '인공시기' 또는 '인공체제', 빨치산쪽에서는 '합법시기'라 부른다.

20) 라주바예프, 『6·25 전쟁보고서』 1권, 264쪽; 양영조는 전쟁 직후 게릴라 형태를 북에서 직접 훈련시켜 남파시킨 766부대 게릴라, 정규군 사단소속의 게릴라, 지구당 게릴라, 낙오병 게릴라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양영조, 「한

산되던 이들은 그후 일부는 북으로 귀환하고 일부는 소탕됨으로써 남쪽 군이 압록강 부근에 도달할 무렵에는 2만 5,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중 1만 5,000여 명이 호남지역을 활동무대로 삼았다.<sup>21)</sup>

### 3. 인민유격대(빨치산) 전남총사령부 창설

인공시기 ‘합법적’으로 광주에 조직돼 있던 조선로동당 전남도당 위원장 박영발<sup>22)</sup>은 1950년 9월 25일 지하당으로 개편하라는 중앙당의 지시에 따라 9월 28일 백야산 기슭의 화순군 북면 용곡리 용촌마을에 당 본부를, 같은 용곡리 약수마을에 당위원장 숙소를 정했다.<sup>23)</sup>

---

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 156쪽). 그러나 이 글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전의 빨치산을 ‘구빨찌’, 전쟁 후의 빨치산을 ‘빨치산’ 또는 ‘신빨치산’이라 부른다.

21) 戰史監室, 『공비토벌사』, 육군본부, 1954, 32쪽; 백선엽, 『實錄 智異山』, 305쪽. 이때의 남한 내의 유격대 인원을 소련 측은 4만 명, 호남지역(목포·담양 등 조선 남서부) 유격대는 한국 측과 같은 1만 5천명으로 보았다(라주바예프, 『6·25 전쟁보고서』 1권, 263쪽).

22) 朴永發은 1911년생으로 경북 봉화의 반농출신이다. 그는 토목노동자로 해방을 맞은 후 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토건위원장을 지냈다. 1947년 월북하여 박헌영의 추천으로 전쟁 전 사회주의 체제의 전문일꾼 육성책에 따라 제3 인터내셔널 노선이자 스탈린주의 노선이었던 모스크바 공산대학 6개월 특별과정의 유학 중 전쟁발발과 동시에 자진 귀국하여 전남도당 위원장이 되었다. 그는 그후 백야산에서 초기 지하 전남도당을 이끌다가 당의 명령에 따라 제5지구당 부위원장이 되어 지리산으로 들어가 활동했다. 그는 제5지구당 결정서 9호와 10호를 통해 전북도당위원장 방준표와 함께 이현상 숙청(평당원으로서의 강등을 의미)에 앞장서기도 했으며, 1954년 1월 6일 제5지구당이 결정서 제10호를 채택하고 해체하면서, 송영희와 함께 조국출판사 책임자로 임명되어 각도 문서수발일을 맡았다. 1954년 1월 중순 뱀사골에서 한국군 35연대 수색대에 포위되자 권총으로 자결했다. 그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정신력이 대단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백선엽, 『實錄 智異山』, 367쪽). 그러나 1954년 1월 중순 자결한 것이 아니라 2월 21일 지리산 뱀사골에서 한국군에 의해 사살되었다는 증언도 있음을 밝혀둔다.

23) 1950년 9월 25일,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는 “각 도당은 남조선 내의 당조직

백아산은 해발 810m밖에 되지 않지만 산비탈은 가파른 경사로 되어 있어 오르기 어렵고 고지가 여러 개 있어 한 곳을 점령당하면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능선이 여러 갈래로 연결돼 있어서 모후산(919m, 화순군 남면 유마리)이나 통명산(765m, 곡성군 오곡면 구성리)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용촌마을은 백아산 정상 바로 아래에 있는 30여 가구의 작은 마을로 창녕(曹)씨 집성촌이기도 한 이 마을은 북면 원리에서 15번 도로를 따라 이천리 학천마을을 거쳐 동북면 독상리로 가는 길 초입 금성마을을 지나 그 안쪽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다.

도당부는 이곳으로 들어오기 직전, 낙오된 인민군과 당원들에게 북면 수리(水里)의 새목(鳥項)마을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었다. 새목마을은 원리에서 역시 15번 도로를 따라 약수마을 앞을 지나 동북면 독상리로 가는 길 중간의 삼거리에서 백아산쪽으로 갈라 들어가는 물골(水里)마을 안쪽에 있으며 새목마을과 웃새목마을로 나뉘어 있다.

후퇴 당시의 도당은 가진 것이라고는 수류탄 몇 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교통수단이나 방어력을 갖춘 사단이나 여단급 부대는 모두 북상했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중앙당과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돼 있는 상황에서 도당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므로 도당 조직위원회의 결정이 곧 중앙당 정치위원회 결정이 되었다.<sup>24)</sup>

10월 5일, 전남도당 조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날 이전에 시달된 당 지시사항이나 집행사항을 추진하는 한편 인민유격대 전남총사령부 및 6개 지구

---

을 지하당으로 개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어떻게 또는 어떠한 체제로 조직하라는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 당시 북쪽 정권은 남쪽 군의 북진에 따라 후퇴하는 데 급급해 남쪽에 있던 각 도의 당에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도당 고위층에서 중앙당의 지시라고 편의상 위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선로동당 정치위원회는 10월 8일 지하당으로 개편하고 유격대를 조직하도록 결정하고, 10월 10일 김일성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지시했기 때문이다(양영조, 『한국전쟁기 북한 게릴라의 활동과 성격』, 168쪽).

24) JKH, 2003년 4월 23일 증언.

창설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다.<sup>25)</sup> 아울러 총사령부 본부를 새목마울로 정하는 한편 도당 부위원장 김선우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 빨치산은 ‘당과 불가분’이라는 원칙에 따라 용촌마을의 도당 본부에서 가까운 새목마울에 총사령부를 자리잡게 한 것이다.<sup>26)</sup>

조선인민유격대 전남총사령부는 총사령관, 부사령관, 문화부사령관을 두고 후방부(병기관장), 정보과, 통신과, 출판과(선전·전단과: 교재를 발간하고, 「전남빨치산」 발행), 의무과로 편성했다. 또한 새목과 갈갱이 중간의 435.5m 고지 뒷쪽 계곡에 부상자를 위한 야전병원, 즉 환자트를 설치했다.<sup>27)</sup> 조직위는 또 부사령관에 오금일,<sup>28)</sup> 문화부사령관<sup>29)</sup>에 이양래, 참모장에 김병추, 부참모

25) JKH에 의하면 조선로동당 전남도당은 지하당 체제로 개편하면서 다음과 같이 조선로동당의 조직원칙을 모든 빨치산들에게 적용했다. (1) 조선로동당 조직의 기본이념은 계급의 전위로서 노동자·농민·양심적 지식인을 지지기반으로 한다. (2) 철저한 중앙집권제로 운영된다. (3) 일체의 분파를 용납하지 않는다. 당은 의지의 통일체로서 분파적·종파적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4) 당은 한 사람이 이끈다.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할 뿐이다. (5) 비판과 자기비판은 당 발전의 원동력이다. 이러한 논리의 강제적 발효가 군대요, 빨치산이다. 그리고 곧 전쟁으로 표출되어 인민군과 빨치산 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1946년 제정된 조선로동당 규약, 제66항은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무장력이다. 조선인민군 내에 산하의 각급 당조직들을 유일적으로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 밑에 사업한다”고 규정하여 인민군과 유격대는 어디까지나 당의 군대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스칼라피나·이정식 공저(한홍구 옮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 897쪽).

26) 1950년 9·28수복 이후 백아산에 조선로동당 전남도당이 조직되고 조선인민유격대전남총사령부가 창설된 사실 및 전남 6개 지역에 ‘지구’가 조직됐다는 사실은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당시 현장 참여자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JKH, 2003년 4월 23일 증언).

27) 빨치산 야전병원에는 주로 중상자가 수용됐던 곳이지만 남쪽의 군대가 집중공세를 가해올 경우 이 곳을 피해 모후산으로 후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중환자를 데리고 다닐 수 없어 민가나 으스스한 곳에 숨겨놓고 가지만 한국군에 노출돼 많은 희생자를 내기도 했다.

28) ‘구빨찌’ 출신인 吳今日(또는 吳今一)은 합법시기 전남도당 로동부장이었다가 비합법시기 백아산으로 들어와 인민유격대 전남총사령부 부사령관이 되었다. 1952년 초 박영발 도당위원장이 신설된 제5지구당 부위원장이 되자 도당 위

장에 노창환(인민군 장교 출신)을 임명했다. 아울러 각 시·군당을 지하당으로 개편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합법(인공)시기 이미 인적 사항이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지하당 조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극히 일부의 特殊線만 지하에 잠복케 한 다음 나머지는 무장투쟁요원, 즉 빨치산 부대로 편성했다.

새목마을에 있던 사령부는 곧이어 군경의 공격을 피해 갈갱이마을로 이동했다. 蘆峙라고도 불리우는 갈갱이 마을은 겹겹이 쌓인 백아산 자락 안에 들어있다. 총사령부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기고 갈갱이 입구 오른쪽에 우뚝 솟아 있는 하늘바위(호랑바위) 꼭대기에 인공기를 게양했다. 패전으로 흐트러진 정규군 체제를 빨치산조직으로 재정비했음을 알리는 것발이었다.

그러나 용촌 마을과 갈갱이 마을은 1951년 봄에 시작된 대공세 때 두 차례 공격을 가한 군경의 방화로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되었다. 이때 도당 본부와 총사령부는 모후산과 통명산으로 일시 피했다가 되돌아온 후, 도 당부는 1951년 8월 백운산으로 이동하고 빨치산 총사령부만 갈갱이를 중심으로 백아산에 끝까지 남아 있게 된다. 총사령부는 도내 전역에서 유격전을 벌여야 하기 때 문이다.

#### 4. 6개 지구 조직

도당 조직위원회는 각 시·군당 및 지역사령부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 6개 지역에 ‘지구’를 창설했다.<sup>30)</sup> ‘지구’란 지하로 잠입한 각 시·군당과 유격대의 원활한 지도와 연락을 위해 일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블록, 즉 도당과 시·군당의 중간에 위치하는 연계조직으로서 ‘당부’조직이 아닌 일정한 거점을 말한

---

원장으로 승진된 김선우 총사령관의 뒤를 이어 총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백운산에서 김선우가 사살된 직후 통명산에서 토벌대의 공격을 받고 부상당한 채 생포돼 수용소로 이송도중 자결했다(백선엽, 『實錄 智異山』, 368쪽). 이와는 달리 산에서 전사했다는 증언도 있다.

29) 문화부는 군대 내의 모든 장병들에게 당의 이념적 노선의 교육과 지도, 세포 활동을 담당하는 한편 부대의 생활과 관리도 담당하는 부서이다.

30) 6개 지구의 설치사실은 전적으로 JKH의 증언에 의한 것이다.

다. 전남도당이 독자적으로 일시 채택한 특수한 조직이다. 책임자는 ‘지구책’이라고 부르되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나중에 군사학교·당학교를 운영하고 신문을 발행하는 한편 몇 개의 시·군당을 거느리는 등 업무량이 많아지고 선전지도원이나 조직요원 등 인원이 늘어나면서 점차 권한과 세력이 커지자 지구책에게 ‘준 당부’ 기능을 허용했다.<sup>31)</sup>

당은 자기의 관할지역을 떠나지 못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대한민국 체제가 환원되자 이를 피해 거점으로 활동할 만한 지형지물이 없는 목포·진도·완도·무안·해남·고흥·여수 등의 당은 인근 산악지대로 이동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모든 시·군당이 6개 지구가 설치된 산 속에 옮겨와 있었다. 이로써 도 당부나 총사령부에 이어 시·군당의 재정비를 완료했다.<sup>32)</sup> 각 지구에는 해당 지구소속 유격대, 각 시·군당에는 자체 유격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31) 이 ‘지구’는 1952년 4월 남한 전체를 5개 지구당으로 개편한 ‘지구당’과 다르다. 여기에는 ‘당부’ 기능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나중에도 ‘준 당부’ 기능밖에 부여하지 않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32) 백야산 당 본부(용촌 마을)와 총사령부(갈갱이 마을)에서 6개 지구와의 연락을 위해서는 산길로 2, 3일 걸리는 사람의 발로 연결해야 했다. 이 때문에 그 중간지점에는 반드시 연락원이나 유격대원들이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곳, 즉 거점 또는 아지트나 비트를 두었다. 아지트는 공산당의 ‘비밀활동지역’(An agitating point or a hideout)을 말한다. 아지트는 대개 몇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주택이나 통나무를 잘라 ‘井’자로 쌓아 올려 비바람을 가릴 수 있는 방 모양을 만들고 바닥은 구들장을 놓은 온돌방이거나 산죽을 깔아 쉴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어떤 일치된 규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비트는 공산당의 비밀활동지역 또는 비밀활동지역(an agitating point or a hideout)을 말하지만 아지트보다 규모가 작아 한 두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말한다. ‘주로 땅을 파서 흙을 멀리 버리고 표시가 안 나게 위를 감쪽같이 위장한다. 입구는 자연적인 넓적한 돌을 주워서 덮고 사이사이에는 미리 낙엽을 가지고 들어가 부서지지 않는 것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쑥쑥 올리면 진히 표시가 나지 않게 마련이다’(이영식, 『빨치산』, 1988, 행림출판, 170쪽).

1) 광주지구<sup>33)</sup>

무등산은 도청소재지인 광주에 접해 있기 때문에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경찰이나 군부대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1951년 봄, 광주시당 본부로 이용하던 무등산 뒷자락의 귀봉암이 화재로 잣더미가 된데다 경찰의 공격을 받게 되자 연락소만 남겨 지하조직과 연락을 갖게 하는 한편 주로 연락망에서 가져오는 신문을 도당에 전달하고 도당에서 발행하는 《전남로동신문》을 광주시에 배포하는 임무를 수행케 했다. 시당은 화순 쪽으로 내려와 전전한 끝에 백아산으로 들어갔다. 광주유격대·광산유격대·화순유격대가 활동하고 있던<sup>34)</sup> 이곳에서는 《무등산 빨치산》이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다.<sup>35)</sup>

2) 노령지구<sup>36)</sup>

노령지구는 전북지역의 회문산지구와 연결되는 요충지로서 지하당 및 빨치산 활동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구본부와 사령부를 비롯하여 장성·영광·담양군당은 가마골에 있었다. 특히 서울·전북과 전남의 중요한 연결교통로인 갈재를 관할에 두고 있는 노령지구는 이 터널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필사적으로 벌였다. 노령지구 빨치산 부대는 두 차례 터널을 공격하여 한번은 성공하고 다른 한번은 실패했다. 그 뒤에는 군경의 방어가 너무 완강해 접근이 어려웠다. 이 지구에는 담양유격대가 활동하고 있었다.

33) 지구책: 조중환, 본부: 무등산과 백아산(무등산이 공격을 받아 폐쇄되자 백아산으로 이동), 관할: 광주시·광산군·곡성군 일부·담양군 일부·화순군 일부(‘지구’ 관할에서 일부 군 지역을 분할하여 소속시킨 것은 지형지세에 따른 것이다).

34) 戰史監室, 『공비토벌사』, 39쪽.

35)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빨치산 자료집』 7권, 1996, 325쪽 참조.

36) 지구책: 김채윤, 본부: 추월산과 가마골, 관할: 장성군·영광군 일부·담양군 일부.

### 3) 유치지구<sup>37)</sup>

유치지구는 화순군 청풍면 청룡리의 화학산(613.8m)을 비롯하여 3개의 국사봉(청풍면 이만리 499.1m, 나주시 다도면 반월리 440.3m, 장흥군 유치면 방산리 613.2m)과 깃대봉(도암면 등광리 496.2m)·개천산(도암면 등광리 497.2m)·천태산(화순군 도암면 천태리 479.1m)·광덕산(화순군 도암면 우치리 376.9m)·가지산(장흥군 유치면 봉덕리 509.9m)·삼계봉(유치면 대천리 503.9m)을 잇는 연봉의 안쪽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장흥군 유치, 화순군 이양·청풍·도곡, 영암군 금정, 보성군 응치, 나주군 다도면에 연결해 있는 지역으로 빨치산들은 ‘유치내산(有治內山)’이라 불렀다. 물론 공식명칭은 아니다. 비교적 넓고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면서도 주변이 산들로 가로막혀 공격을 받을 경우 방어하기 쉽고 이산 저산으로 이동하기 용이한 곳이다. 이 때문에 유치에는 한국전쟁 전의 ‘구빨찌’ 시절에도 도당본부가 옮겨와 있을 정도로 빨치산 투쟁의 요충지였다.<sup>38)</sup>

37) 지구책: 윤기남, 본부: 유치내산, 관할: 장흥군·동 나주(영산강 동부지역)·목포시·영암군·강진군·해남군·화순군 일부(도곡면·도암면·청풍면)·진도군·완도군·고흥군. 1950년 10월 이후 지하체제(비합법)시기 조선로동당 목포시당과 영암군당은 당초 불갑산지구 예하 소속이었으나 ‘대보름작전’으로 불갑산지구가 붕괴되자 유치지구로 이동했다는 증언이 있다(김수원, 2003년 10월 19일 증언). 그러나 초기부터 유치지구 예하 소속이었다는 반론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그의 증언내용이 검증될 때까지 증언인용을 유보하기로 했다.

38) 한국전쟁 전인 1949년 5월, 광주에 은신하고 있던 조선로동당(남조선로동당) 전남도당은 군경의 집요한 감시와 공격을 피하기 위해 광주에 아지트만 남겨놓고 화학산 서남쪽에 있는 가지산 골짜기로 본부를 이동한 후 한국전쟁을 맞았다. 이 곳으로 오기 전까지의 도당 위원장은 격려상이었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1949년 봄까지 공석이였다가 경기도에서 전입해온 전인수가 도당 위원장, 김선우가 부위원장이 되었다. 일본의 제국대학 출신인 전인수는 나중에 도당 간부들로부터 관료주의적 타락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숙청되는데 광주지구유격사령관 김용길에 의해 총살되었다. 이 곳에 있던 호남지구유격사령관은 최현이었다. 충남당진 출신인 그가 1949년 8월 해남에서 전사하자 도당부위원장 김선우가 총사령관 직을 승계하게 되고 1부사령은 김병수(황전), 2부사령은 김상중(하동), 3부사령은 김채운(순천), 4부사령은 윤기남(해남), 5부사령은 이방후(화순), 6부사령은 정남철(화순)이 임명됐었다(김

유치지구 본부는 유치면 대천리 감천마을, 남해여단은<sup>39)</sup> 삼계봉 기슭이자 지구 본부에서 가까운 대천리 강만마을, 유치지구유격사령부는 화학산 기슭의 잣밭재에 각각 자리잡고 있었다. 전남 총사령부 직속 유격부대인 민청연대는 화순군 도암면 행산마을 뒤 덕룡재로부터 왕정리 붉은재, 봉학동, 신기마을을 거쳐 영산강 상류, 지금의 나주댐으로 흘러 들어가는 계곡에 배치되어 있었다.

입산해 있는 시·군당도 무려 10개나 되고 300여 명의 남해여단과 장흥유격대를 비롯한 10개 시·군당 유격대까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내 6개 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이었다.<sup>40)</sup> 특히 당 요원은 물론 그 가족과 동조자 그리고 좌익으로 의심받을 만한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1만여 명이 북적대고 있었다. 심지어 1951년 2월 20일 붕괴된 불갑산지구 요원들까지 몰려들었다. 1951년 3월 18일,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남해여단이 전멸되고 그해 4월 24일 대공세를 받아 2,000여 명이 희생되는 등 큰 타격을 입지만, 전남도당과 총사령부가 궤멸되는 1954년 4월까지 버티어냈고 그후에도 잔존세력이 은밀하게 활동했던 지구다. 유치지구는 《유치빨치산》이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다.<sup>41)</sup>

#### 4) 불갑산지구<sup>42)</sup>

불갑산은 주봉인 연설봉(518.9m) 이외 모악산(347m)·건무산(338m)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많아 은신하고 이동할 수 있는 루트가 풍부한 장점이 있어 불갑산지구가 들어선 것이다. 대한민국 체제가 다시 환원되자 좌익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좌익성향의 많은 사람들이 불갑산으로 들어왔다. 심지어 1950년 12월 6일부터 다음 해 1월 14일까지 육군 제11사단 제20연대 제5중대 병력에 의해 ‘공비’ 색출이라는 미명하에 월야·해보·나산면 등 3개면 14개 마을 주민 524명이<sup>43)</sup> 학살되자 순수한 농민들까지 불갑산으로

세원, 『비트』, 도서출판 일과놀이, 1994, 47·56·69쪽).

39) 다음 장, 각주 64항 참조.

40) 戰史監室, 『공비토벌사』, 509쪽.

41)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빨치산 자료집』 7권, 326쪽 참조.

42) 지구책: 김용우, 본부: 불갑산, 관할: 장성군 일부·영광군 남부·서 나주(영산강 서부지역, 금성산 포함)·함평군·무안군.

들어오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당시 “불갑산에는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불갑산지구(지구책 김용우)는 해보면 광암리·산내리 접경인 오두치재와 그 아래 가정마을에, 불갑산지구빨치산사령부는 용천사에, 함평군당은 용천사 바로 아래인 광암리 광동마을에 자리잡고 있었다. 영광군당은 백수면에 있다가 2월 19일, 군경의 공격으로 민간인 2,000여 명과 함께 영광유격대가 전멸하면서 붕괴되었다. 극히 소수의 비무장 요원만이 해보면 산내리로 들어와 ‘대보름작전’을 맞았다. 또한 무안군당은 오두마을에, 장성군 삼서면당과 영광군 묘량면당은 구수재 넘어 구수동에 있었고, 장성군당 및 삼계면당과 영광군 대마면당은 장성 쪽으로 빠져나가고 불갑산에는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갑산지구는 1951년 2월 20일(음력 정월 보름날), 전개된 ‘대보름작전’으로 궤멸된다. 그후 ‘지구’재건이 몇 차례 시도됐었다. 특히 김수원이 이끄는 30여 명의 함평군당유격대(함호대)가 3월 15일까지 잔존해 기습작전 등을 벌였으나 군경의 공격으로 붕괴됨으로써 끝까지 지탱하지 못했다.<sup>43)</sup> 이곳에서는 《불갑산 빨치산》을 발행하고 있었다.<sup>44)</sup>

## 5) 모후산지구<sup>46)</sup>

모후산지구는 백아산 배후 지구로 백아산의 도당과 총사령부가 군경토벌대의<sup>47)</sup> 대공세를 받게 되면 이곳으로 옮겼다가 전세가 회복된 후 다시 백아산으로 되돌아가는 예비지구나 다름없었다. 지구본부는 산막마을, 빨치산 사령

43) 1969년 6월 10일 국회조사단이 조사한 숫자.

44) 2003년 10월 19일, 김수원 증언.

45)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빨치산 자료집』 7권, 321-324쪽 참조.

46) 지구책: 박계현, 본부: 모후산과 말봉산, 관할: 화순군 일부(한천면·동면)·보성군·송주군·고흥군.

47) 빨치산 측은 ‘토벌’ ‘소탕’ 또는 ‘토벌대’ ‘소탕작전’이라는 용어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군들이 즐겨쓰는 용어, 즉 친일적 용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치할 만한 마땅한 용어가 없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부는 유마사와 배암이골에 있었고 화순·보성·승주·고흥군당은 유마·산정마을과 가논골에 분산돼 있었다. 이곳은 백아산의 도당과 사령부에서 조계산과 말봉산을 거쳐 유치지구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통로였다. 1951년 3월 백아산에서 쫓겨온 본부요원들이 모후산으로 이동하다 경찰의 공격을 받고 도당 선전부장 선동기 등 많은 인원이 희생되기도 했다. 또한 조계산에서 항미소년유격대 30명이 단독으로 작전을 벌이다 전멸됐는가 하면, 1952년 가을 모후산 유격대 150명이 도룡과 용수 사이 고개에서 사찰유격대에게 전멸당하는 수난도 겪었다. 이곳에는 보성유격대가 활동하고 있었다.

#### 6) 백운산지구<sup>48)</sup>

백운산(1217.8m) 주봉 오른쪽으로 매봉(865.3m)과 역불봉(962m)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갈라지고 왼쪽 기슭에 한재(852.6m)가 있다. 그 너머는 상한재, 중한재를 거쳐 섬진강과 경남 하동으로 이어진다. 한재 왼쪽으로는 도솔봉(1127.1m)과 형제봉(961.3m)을 거쳐 지리산 자락으로 연결된다. 산이 높고 넓어 은신처가 많은데다 산자락에 화전민 등 주민들이 살고 있어 보급확보와 정보입수에 유리한 지역인 반면 군경의 접근은 쉽지 않은 곳이다. '지구'의 본부와 1951년 8월에 이동해온 도 당부 및 유격대는 백운산 주봉 아래의 아주 깊고 험준한 88골에 자리잡았다.<sup>49)</sup> 이 지구는 지리산에서 활동하는 '남부군'은 물론 다른 도당과의 연락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남도당은 일찍부터 이 지구를 중요시했다. 지구와 도 당부는 1954년 4월까지 버티다가 그해 봄 군경의 대공세 때 무너지게 된다.

48) 지구책: 정귀석, 본부: 백운산, 관할: 광양군·여천군·구례군 일부(나머지 구례군 일부는 지리산에 있었다). 구례군 일부는 지리산으로 들어갔으나 1개 군으로는 지구를 개설할 수 없어 '지구 미개설군'으로 있다가 뒤에 전투지구 사령부를 개설하게 된다.

49) 빨치산들은 '전남도당부'를 '88'이라는 암호로 호칭했고 그 '전라남도당이 있는 골짜기'를 '88골'이라 불렀다.

## 5. 빨치산의 승리와 패배와 궤멸

### 1) 호남지역 빨치산의 현황

한국전쟁을 치르고 있던 남쪽 군에게는 후방을 교란하고 치안질서를 파괴하는 적의 빨치산을 섬멸하는 일이 전선에서 북쪽 군과의 전쟁 못지않은 선결과제였다. 전남의 경우 전남총사령부 직속의 제1·제3·제8·제15연대, 민청연대, 포부대, 제540·제550부대가 있었고 각 지구의 유격대와 군당소속 유격대 이외 남해연단, 어버이부대, 제522·제523·제524부대 등 1만 5,000여 명이 맹활약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백운산·백아산·불갑산·화학산·국사봉·모후산·추월산 등등 도내 각 산악지대에 거점을 두고 군경의 보급로 차단, 식량약탈, 경찰서와 지서습격,<sup>50)</sup> 차량기습, 통신망 절단, 열차기습<sup>51)</sup>, 철교파괴,<sup>52)</sup> 무기약탈,<sup>53)</sup> 그리고 우익인사에 대한 살인 및 방화를 일삼았다. 전라남도의 25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 인민공화국 체제를 모방한 통치기구를 암암리에 설치해 유격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었다.<sup>54)</sup>

50) 1951년 8월 1일 밤, 백아산의 총사령부 직속 기동부대인 제15연대 빨치산들은 북면 이천리 학천마을에 주둔하면서 자신들을 공격하고자하는 서남지구전투경찰사령부 소속 1개 중대 막사를 기습했으나 완전점령에 실패했다(『전남빨치산』, 1951년 8월 15일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7-신문편 2』, 319쪽). 또 1951년 9월 12일 밤 이현상부대와 전남총사령부 예하 제7연대는 구례군 산동지서를 습격했다. 이들은 산동면 일대를 점령하고 4개 리를 해방시켜 인민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빨치산 대원 초모사업 등을 벌이다가 3일 만에 후퇴했다(《전남인민보》, 1951년 9월 20일자;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자료집 7-신문편 2』, 345쪽). 이어 1951년 9월 30일, 역시 남부군사령관 이현상 부대 300-400명과 곡성유격대 및 총사령부 소속 제1·제7연대는 합동으로 곡성경찰서를 습격했다(JKH 증언).

51) 1950년 11월의 장성 갈채터널, 1951년 8월의 화순 쌍봉터널.

52) 1951년 11월의 화순 한한철교.

53) 1951년 2월 총사령부 직속 유격대와 백운산지구유격대는 순천시내의 순천농업고등학교를 기습하여 군경 토벌대의 탄약창고를 점거하고 탄약 수만 발을 용개산으로 옮기는 데 성공했다(JKH 증언).

5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67-168쪽.

한국 정부는 1950년 10월 15일, 전남지역 1만 5,000명을 비롯한 2만 5,000여 명의 후방지역 빨치산(유격대·공비) 토벌작전을 전담할 제3군단(군단장 이형근 준장)을 창설했다. 뒤이어 1951년 11월 25일, ‘백야전전투사령부(사령관 백선엽 소장)’를 창설하는 등 군단 급 이상의 부대를 두 차례나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 때문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체결 무렵에는 남한 내의 빨치산은 크게 위축돼 있었다. 특히 휴전 이후 전투력에서 다소 여력을 갖게 된 한국정부와 군 당국은 또 다시 ‘박전투사령부(사령관 박병권)’와 ‘한전투사령부(사령관 한신)’를 잇따라 창설해 후방 빨치산의 섬멸에 더욱 박차를 가한 끝에 1954년 4월, 대체적인 마무리를 짓게 된다. 물론 이후에도 극히 소수의 ‘공비’가 잔존해 있었지만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다가 1963년 11월 12일 이흥이의 생포와 정순덕의 사살로 완전 소멸된다.

## 2) 남한 내 빨치산의 재정비

빨치산들은 이같은 군경의 공세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백야전사의 토벌작전이 일단 마무리되고 다시 봄이 찾아온 1952년 4월, 빨치산 측은 그동안 위축되었던 유격대를 재정비했다. 우선 작전을 위주로 하는 ‘지대’를 해체하고 남쪽 전지역을 각 도당 대신 5개 ‘지구당’으로 개편하는 한편 유격대를 중대단위로 세분화시켜 기동력을 높였다.

제1지구는 서울·경기도 전지역, 제2지구는 울진군을 제외한 강원도 남부 전지역, 제3지구는 논산군을 제외한 충청남·북도 전지역, 제4지구는 경북 전지역과 울진군 및 낙동강 이동의 경남지역, 제5지구는 전남·북 전지역과 낙동강 이서의 경남지역 및 논산군과 제주도 전지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같은 재편은 1951년 8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당 정치위원회 제94호 결정서 「미해방지구에 있어서의 당 사업과 조직에 대하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은 1952년초에야 인편으로 각 빨치산 부대에 전달됐다. 당시는 산중(山中)의 빨치산들이 1951년에야 전달받은 1950년 12월 최고사령부의 당조직을 ‘지대’로 개편해 유격전에 주력하라는 지령을 겨우 집행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 때문에 도당을 폐하고 5개 지구당으로 개편하라는 제94호 결정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어 전남도당은 제5지구당 체제 내에 그대로 남아 전남지역을 총괄하고 있었다. 이때는 백야전사의 대토벌로 지리산·호남의 빨치산들이 재기불능의 타격을 받은 상태였다. 북쪽의 이같은 결정은 백야전사의 대토벌과 휴전회담이 시작된 정세변화를 감안해 빨치산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sup>55)</sup> 이러한 변화 속에 지리산에는 이현상의 ‘남부군’이 등장해 대대적인 빨치산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sup>56)</sup>

### 3) 백야산과 6개 지구 공략

대규모의 군경토벌군은 빨치산전남총사령부가 있는 백야산은 물론 6개 지구의 무등산·추월산·화학산·불갑산·모후산·백운산을 비롯하여 태청산·조계산·말봉산·월출산 등 빨치산이 은거해 있는 산악지대를 일제히 공격했다.

1951년 봄부터 11월까지 전남도당 본부와 빨치산 총사령부가 있는 백야산 일대에 대한 군경의 공세는 치열했다. 3월 들어 용촌과 갈강이를 비롯한 주변 마을들이 모두 점거되거나 소실되는 바람에 도당은 백운산으로 옮겨가고 총사령부만 백야산에 남아 있었다. 4월에는 중봉·병기고지·총사고지를 잇는 삼각고지에<sup>57)</sup> 네이팜 탄이 비오듯 투하돼 유격대원들이 새카맣게 숯처럼 타 죽어갔다. 군경은 백야산 정상까지 점거하여 토치카를 구축하고 주변 빨치산들을 압박했다. 밤이면 빨치산에 의해 산상의 토치카가 파괴되자 입산자 가족들을 동원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군경의 공세에 밀려 빨치산 주력부대가 빠져버리자 4월, 435.5m 고지 안쪽 개울가에 설치돼 있던 중환자트에서 모포를 둘러쓴 채 재귀열병을 치료하고 있던 400여 명의 빨치산 환자들이 집단으로 사살되었거나 불에 타 죽었다.<sup>58)</sup> 역시 재귀열병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백야산 주변마을 사람 700여 명도 희생됐다.

55) 백선엽, 『實錄 智異山』, 347-349쪽.

5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84쪽.

57) 이 지명들은 빨치산 측에서 편의상 작명한 명칭이다(JKH의 증언).

58) 다른 기록은 이때 희생된 빨치산 재귀열병 환자를 700명으로 적고 있다(정진아, 『빨치산의 딸』 중권, 실천문학사, 1990, 51쪽).

이로써 산자락의 은신처나 해방구는 거의 사라졌다. 가장 안전할 것으로 여겼던 갈쟁이는 물론 그 주변 마을들도 1951년 가을 무렵 모두 점령되었다. 그러나 빨치산들은 마을 아닌 산기슭에 아지트를 만들어 은신하면서 1954년 4월까지 계속 투쟁했다.

#### 4) 불갑산 대보름 작전

이에 앞서 가장 먼저 공략한 지구는 불갑산지구였다. 1951년 2월 20일 ‘대보름작전’이라 부르는 토벌작전은<sup>59)</sup> 제11사단 제20연대 제2대대 병력 718명에 의해 전개됐다. 토벌군은 7개 방면에서 불갑산지구 사령부가 있는 용천사와 모악산, 그리고 구수재·노은재를 잇는 능선을 향해 진격했다. 무장이라고는 구식소총 등 40여 정에<sup>60)</sup> 불과한 빨치산들로서는 육박전까지 벌였지만 끝까지 대응할 수가 없었다. 중과부적이었다. 무장유격대는 유치지구로 탈출하고 비무장 민간인 1,005명이 희생되면서<sup>61)</sup> 불갑산지구는 붕괴됐다.<sup>62)</sup> 또한

59) 국방부가 발행한 『共匪討伐史』, 『共匪沿革』에는 불갑산 대보름작전 일자가 1951년 2월 20일(음력 정월 15일)로 기록돼 있다. 이 작전과 관련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전인 음력 14일(양력 2월 19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남산포 학살사건 당시 월악산 채실에 숨어 있다가 그후 불갑산으로 입산한 후 군의 대보름작전을 미리 알고 작전개시일인 대보름(음력 정월 보름) 하루전인 열 나흘(정월 14일·양력 2월 19일) 불갑산에서 나왔다는 鄭峻探(1934년 생)의 증언은 군 기록과 일치한다(2000년 9월 5일 증언).

60) 불갑산의 빨치산은 소총 40여 정에 사수·조수·예비병 등 1백 20여 명으로 편성돼 1개 부대를 이루었다(JKH 증언).

61) 앞의 「전투상보」는 제5중대 120명, 제6중대 70명, 제7중대 130명, 제8중대 250명, 중포중대 280명, 대전차포중대 85명, 연대수색대 70명 등에, 적 사살 1,005명, 생포 148명, 아군 전사 3명, 부상 24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62) 대보름작전으로 불갑산지구는 1950년 2월 20일 붕괴됐으나, 김수원을 대장으로 하는 함평군당 소속 ‘잔비’ 30명이 3월 15일까지 기습적인 활동을 벌였으나 군경의 공격을 받아 30명에서 7명 나중에는 2명으로 감소됐다가 얼마후 붕괴됐다(2003년 10월 19일 김수원 증언). 또한 장성군 삼서면당이 태청산으로 옮겨 3월 23일까지 버티다가 소탕됨으로써 불갑산지구는 완전히 붕괴됐다. 그러나 불갑산지구 극소수 인원의 ‘잔비’가 태청산에다 비트를 만들어 1년 정도 버티다가 소멸됐음이 최근 밝혀졌다(김영택, 『한국전쟁과 함평양

1951년 봄 무등산 귀봉암에 있던 광주지구가 군경의 공세와 화재로 인해 무너졌다.

## 5) 남해여단 전멸과 유치지구 공격

군경은 또 1951년 유치지구 감만마을에 주둔중인 남해여단을 기습해 전멸시킨 데<sup>63)</sup> 이어 1951년 4월 24·25일 이틀 동안 유치지구를 공략했다. 제11

민학살』, 297-298쪽).

- 63) 한국전쟁중 남하하여 전남 담양에 주둔하고 있던 남해여단의 이청송 여단장은 동만주항일유격대 출신으로 김일성과 함께 소련으로 넘어가 소련군에 소속돼 있다가 해방 후 북쪽으로 귀국하여 인민군 제1·2사단을 창설한 북쪽 장성 중에서도 손꼽히는 전략가였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제2사단을 이끌고 남하하면서 중서부전선(철원)을 돌파하여 한강 이남으로 진출해 서울을 포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철원작전에서 패전하는 바람에 징계를 받아 준장급으로 강등됨과 동시에 정치보위부에 대기해 있다가 사단편제로 승격할 예정인 남해여단장에 임명되어 남하했다. 9·28 후 주둔지인 담양에서 북상 도중 추풍령에서 퇴로가 차단되자 주력병력을 참모장에게 맡겨 북상토록 하고 자신은 낙오된 인민군을 추스려 제2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정치위원 조정철과 함께 보위부대원 300명을 이끌고 다시 남하하던 중 전남도당위원장 박영발의 요청을 받고 유치지구로 들어왔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유치지구로 들어온 이청송 남해여단장이 전남도당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앙당과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전남도당이 조선로동당 중앙당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이청송은 '전남도당은 중앙당이 아니기 때문에 도당의 명령을 따를 수 없으며 우리는 오직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돼 있는 인민군 총사령관의 지시를 받을 뿐'이라며 독자적 행보를 강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대적 전술훈련을 받은데다 최신식 무기까지 갖춘 300명의 정규 인민군 부대인 남해여단은 막강한 군사력이었다. 그러나 당과의 불협화음 속에서 지방 좌익들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삼계봉(503.9m) 기슭인 유치면 대천리 감만마을에 주둔하고 있다가 1951년 3월 18일 밤, 안개 낀 어두움을 이용해 기습한 한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병력에게 전멸당하고 말았다. 이청송 여단장, 조정철 정치위원은 물론 박창희(제2군단 검찰소장·이창욱(중앙당 책임지도원)·김병추(참모장)·강기천·이강진·박대좌 등 고위인사들이 전원 전사하고 무기까지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JKH 증언: 김세원, 『비트』, 117-118·133-135쪽). 남해여단의 전멸은 아직까지도 그 내막이 소상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의아스럽고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사건이다.

사단과 교체된 제8사단 병력을 비롯하여 화순·영암·장흥·보성경찰대와 능주·이양·보성역에 주둔하고 있던 철도경찰까지 동원했다. 화학산 정상인 삿갓봉에서 각시바위와 바람재에 이르는 남쪽능선, 잣밭재와 금성산에 이르는 북쪽능선, 광덕산과 가마터·천태산·개천산·선왕산 일대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빨치산 700여 명이 전사하고 비무장 민간인 2,000여 명이 희생됐다. 이후에도 유치지구는 여러 차례 군경의 공격이 가해졌으나 1954년까지 버텼다.<sup>64)</sup>

#### 6) 백운산 토벌과 전남 빨치산의 궤멸

군경의 공세는 백운산지구, 모후산지구는 물론, 노령지구가 있는 추월산에도<sup>65)</sup> 예외없이 가해졌다. 휴전이 이루어진 1953년 가을부터 1954년 4월까지 군과 경찰은 전국적 규모의 빨치산 섬멸작전에 박차를 가했다. 전남뿐만 아니라 지리산을 비롯해 전국에 산재해 있는 빨치산 부대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었다. 백운산에 있던 도당부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1951년 춘계공세 때, 백아산에서 옮겨온 도당 이하 지구와 각 군당 요원들은 백운산 기슭에 은신해 있었다. 그중에서도 도당 각 부서는 백운산 자락 맨 윗마을인 논실과 한재(852.6m)와 백운산 주봉을 잇는 삼각지대의 험악한 산기슭의 바위틈새인 88골에서 1954년 봄까지 버티고 있었다. 이 무렵 새로 창설된 박전투사령부와 한전투사령부는 잇따라 백운산과 지리산 일대에서 작전을 벌이고 있었다.

백운산지구 빨치산들은 한전투사 예하 제5사단 제35연대 병력을 맞아 집전을 벌였지만 중과부적이었다. 전세의 불리함을 직감한 전남도당 위원장 김선우는 2명의 동지와 함께 1954년 4월 5일, 토벌군의 공세를 피해 88골을 떠나 산 너머 광양군 다압면쪽 아지트로 가기 위해 백운산 주봉 바로 아래의

64) 김세원, 『비트』, 139-148쪽.

65) 노령지구가 있던 가막골에는 1951년 7월부터 8일까지 35명의 보아라부대가 출동하여 빨치산 본거지 가막골을 전격적으로 습격하여 이틀동안 1백 20명의 빨치산을 사살하는 한편 23개소의 아지트를 소각하는 전과를 올렸다(신기남, 『빨치산 '지리산 보아라부대',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1988년 가을호, 394쪽).

1,168m 고지를 넘다가 사살되고 나머지는 생포되었다.<sup>66)</sup> 3일 후인 4월 8일 도당 각 부서 요원들도 88골에서 생포됐다. 이로써 1950년 10월 5일, 지하조직으로 개편된 ‘전남도당’은 3년 6개월 만에 공식기능을 마감했다. 다만 잔류 세력에 의해 3개의 전남지역 주재 당이 새로 조직되기도 했으나 1955년 봄 모두 붕괴됐다.<sup>67)</sup>

66) 金善佑는 1918년생으로 보성 출신. 일제강점기부터 사회주의 지하활동을 했고 1946년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 전남도당 유격대를 지휘했던 ‘구빨치’ 출신. 합법시기 한때 조선로동당 전남도책을 맡았다가 박영발이 위원장으로 내려오자 부위원장이 되었다. 9·28 후 백산의 비합법시기 전남도당 부위원장 겸 인민유격대 전남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1952년 초 개편된 제5지구당 부위원장이 된 박영발 후임으로 도당위원장을 맡게 된 그는 인민유격대 전남총사령관직을 부사령관 오금일에게 넘겨주고 백운산에서 도당 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4년 4월 5일 토벌군의 공격을 받고 사살되었다(JKH 증언). 그러나 그의 사망일자도 4월 5일이 아닌 ‘1954년 2월 27일 백운산 야지트를 습격반자 수류탄으로 자결했다’는 기록도 있다(백선엽, 『實錄 智異山』, 368쪽; 정진아, 『빨치산의 딸』 중권, 1990, 187쪽). 그러나 4월 5일까지 함께 지내다 헤어진 증언자가 확고하게 4월 5일 사망설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날 김선우를 사살한 부대는 경찰이 아니라 제5사단 제35연대 제2대대로서, 대대장은 비록 적이지만 적장의 예우를 갖추어 사살 장소에서 30m쯤 올라간 1,198m 고지 능선에다 매장토록 허용했다는 사실이 그의 동지들에 의해 입증됨으로써 4월 5일 설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후 동지들이 해마다 비밀리에 김선우의 묘소를 찾아 추모의 예를 올렸다는 사실은 4월 5일 설과 사살장소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 『대비정규전사』는 “4월 4일 제35연대 제10중대 수색조는 내회골(CP785846)에서 수색작전중 공비 4명을 발견하여 2분간 교전 끝에 2명을 생포하고 2명을 사살했다. 이 전투에서 생포된 공비는 전남도당 연락부장 김희주와 경리원 박흥태였으며, 사살된 자는 전남도당 위원장 김선우와 선전부장 김덕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교전장소인 내회골은 광양군 다압면 고사리 내회골 마을이다. 백운산 주봉에서 동쪽으로 갈라진 매봉(865.3m) 바로 아래의 싸목재와 천황재 중간지점의 해발 800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서 평소 빨치산들이 야지트로 사용하던 곳이다. 이 마을은 김선우의 동지들이 증언하는 사살지점인 1,168m 지점에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백운산 주봉 반대쪽에 있다. 이 기록이 그의 동지들이 증언하는 사살일자나 장소와 가장 엇비슷하다(정진아, 『빨치산의 딸』 중권, 322쪽). 이곳에 있던 김선우의 假墓는 유족에 의해 1988년 겨울, 보성군 웅치면 용산리 입추마을(고향마을) 뒷산으로 이장됐다.

67) 도당의 공식기능은 붕괴됐지만 잔류세력에 의해 3개의 지역 주재 도당이 새

한편 백아산 일대에 거점을 두고 있던 빨치산 전남총사령관 오금일은 1953년 가을부터 1954년 봄까지 집중적으로 전개된 토벌작전 때문에 통명산으로 이동했으나 끝내 체포돼 호송도중 자살했다.<sup>68)</sup> 이 무렵 빨치산 소탕작전은 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지리산의 문수골·피아골·뱀사골에도 예외 없이 전개되어 지리산 유격대도 거의 궤멸됐다.

## 6. 빨치산 궤멸의 원인

그러면 좌익 빨치산은 왜 궤멸하게 되었는가? 대체적으로 다음 7개 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궤멸원인은 비단 전남 빨치산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sup>69)</sup>

### 1) 대한민국의 빨치산 토벌의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발효됨으로써 전화(戰禍)에 시달리던 대한민국은 안정을 되찾게 되자 후방을 교란하던 빨치산 섬멸을 지상과제로 삼았다. 공산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빨치산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를 안고 있었다. 빨치산 척결의지의 당위성은 여기에 있었고 빨

---

로 조직되었다. 합법시기 목포시당 위원장이었다가 불갑산지구책을 맡았던 김용우는 서부주재 당부를 조직하여 지하활동을 벌였다. 그는 나중에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 도당 책임지도원과 농민부장, 유치지구책을 맡았던 이방휴는 남부주재 당부를 조직해 활동하다가 전사했고, 화순출신인 박갑출은 서부 도당부를 조직해 조선로동당전남도당위원장 기능을 하다가 1955년 3월 3일 백아산에서 체포되자 자폭함으로써 전남도당은 완전히 궤멸되었다(김세원, 『비트』, 250·327쪽). 김선우 도당위원장이 공식적인 전남도당 위원장이었다면 박갑출 등은 김선우 피사살 후 남·서부로 분산된 도당 중·서부지역 도당위원장 기능을 수행했던 인물들로 볼 수 있다.

68) 백선엽, 『實錄 智異山』, 368쪽.

69) 빨치산 궤멸의 원인은 연구자의 자료분석 및 판단과 빨치산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했다.

치산 궤멸의 필연성 또한 여기에 있었다.

## 2) 미국의 강력한 지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던 미국은 전쟁의 승리는 물론 빨치산 섬멸을 위해 현대적 무기와 탄약·보급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미국의 대공산권 봉쇄정책 및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세력권 안에 두어야 한다는 대한(對韓)정책과 맞물려 있었다. 이 때문에 휴전이 되자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후방에서 치안을 교란하며 정권전복을 획책하고 있던 적의 빨치산 토벌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심지어 미8군사령관 벤 플리트는 빨치산토벌작전에 미군병력을 투입해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sup>70)</sup> 빨치산 측은 비행기·보급품·무기를 무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한국군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미 고문관 때문에 자신들의 패망은 필연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소련 측은 미국이 중일전쟁 당시 ‘유격대 토벌’에 참여했던 전(前) 일본군까지 끌어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sup>71)</sup>

## 3) 세균전 피해

빨치산들은 1951년 봄부터 겨울까지 ‘재귀열병’이라는 유행병에 시달려야 했다.<sup>72)</sup> 재귀열병은 학질 같은 증상으로 높은 열에 어지럽고 기진맥진하여 의욕을 잃을 뿐만 아니라 걷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산악지대에서의 도보행진이 절대적 요건인 빨치산의 전투력은 극도로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군경의 대공세가 가해지고 있을 무렵인 1951년 3월 20일 11시쯤 “난대없

70) 백선엽, 『길고 긴 여름 날-1950년 6월 25일』, 지구촌, 1999, 227-234쪽; 로이 E. 애플만 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역, 『유엔군 전사-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제1 집, 육군본부, 1963, 391-394쪽.

71) 라주바예프, 『6·25 전쟁보고서』 1권, 262-270쪽.

72) 재귀열병은 일명 ‘회귀열병’이라고도 부르며 일종의 풍토병으로 606호 ‘살바르산’ 주사약 한 대면 쉽게 치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태륜기, 『회상의 황하-피어린 독립군의 항쟁수기』, 갑인출판사, 1975, 71쪽).

이 잠자리 비행기(프로펠러 비행기를 말함) 1대가 빨치산 공격과는 무관하게 빨치산 전구(戰區)를 빙빙 돌았다.”<sup>73)</sup> 그후 봄이 되면서 유치지구에서 처음 발견된 후 전 유격전구에 괴질이 나돌아 많은 빨치산 대원들이 중병을 앓았다. 재귀열병의 숙주인 이를 털어내기 위해 ‘머리를 깎는다’, ‘속옷을 소독한다’며 야단법석이었다. 백야산지구에는 4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다.<sup>74)</sup> 도당은 “재귀열병과의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빨치산 제1·제15연대는 1951년 봄 곡성군 석곡지서와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면사무소에 보관중이던 재귀열병 치료제 ‘마파상’ 주사약을 탈취했다.<sup>75)</sup> 이 주사약 때문에 그해 연말에는 재귀열병 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빨치산 측은 미국이 제공하고 한국군이 살포한 재귀열병 세균이 빨치산 궤멸의 중요한 가닥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sup>76)</sup> 그러나 북쪽 정권은 물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중국도 미군에 의한

73) JKH의 증언, 일부 기록은 비행기가 3대였다고 적고 있다(정진아, 『빨치산의 딸』 중권, 41쪽).

74) 이들 400명은 환자트에서 치료중 1951년 4월, 군경의 공격을 받아 주력부대가 빠져나간 사이 전원 사살되거나 불에 타 죽었다(앞 5장 ‘총사령부와 6개 지구 공략’항 참조). 정진아의 『빨치산의 딸』은 700명으로 적고 있다(정진아, 『빨치산의 딸』, 49쪽).

75) 정진아, 『빨치산의 딸』 중권, 51쪽. 빨치산 측은 한국군이 빨치산 전구에 재귀열병 세균을 뿌려 전의를 상실케하는 한편 무고한 주민들에게 미리 이 약을 배분하여 이환되지 않도록 방제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JKH 증언).

76) 백선엽, 『實錄 智異山』, 333-334쪽. 그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당시의 전염병을 빨치산들은 흔히 재귀열이라고 불렀다. 이 병은 51년 봄 빨치산 사이에 급속히 번져 갔는데 고열이 계속되고 기력을 탈진시키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회복기의 환자들은 유난히 식욕이 왕성해져 어김없이 닥치는 대로 배를 채우는데 그 경우 열이 재발해 한 층 위험한 지경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열병’이란 뜻의 이름이 붙었다. 빨치산 출신이면 누구나 그 공포를 기억하는 이 열병을 이태의 『남부군』은 파타티푸스임 것으로 추정한 반면 미군의 세균전 실험 결과로 보는 주장도 무성하다. 한마디로 세균전 운운은 근거없는 소리다. 세균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병이 번지기 직전 미군기가 호남·지리산 일대의 산악을 저공으로 비행했으며 군경 부대나 주민들에게는 미리 예방약이 보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균전이 벌어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sup>77)</sup>

#### 4) 중앙당과의 연락두절과 남로당계 숙청

전남도당이 재정비되고 유격대 총사령부가 창설될 당시 중앙당은 지하당으로 개편하라는 지시 이외 어떠한 구체적 지령을 내린 적이 없다. 또한 지령을 내려도 통신수단 미비로 뒤늦게 전달돼 차질이 많았다. 전남 도당이 연락을 받은 것은 두 차례다. 특수부대가 전선을 뚫고 내려온 경우와 배편으로 변산 반도로 상륙한 인편이었지만 명령이 너무 늦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회답을 가지고 복상하던 연락원마저 모두 체포돼 처형되는 바람에 남과 북의 업무연락은 전무한 상태였다. 특히 1952년 이후 북쪽에서 박헌영을 비롯한 남로당계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진행됨으로써 그들의 지령을 받고 있던 남쪽 빨치산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다.<sup>78)</sup>

---

당시 한국군의 대표적 지휘관이었던 나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후에도 어디서고 그런 비슷한 얘기조차 들은 바가 없다.

그러한 세균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똑같은 열병을 중공군도 앓았다는 점이다. 당시 1사단장으로 중공군과 직접 대치하고 있던 나는 열병을 앓고 있는 중공군 포로를 셀 수 없이 대하고 있었다. 보급선이 길게 늘어져 거의 굶다시피했던 그들의 몸에서 이가 허영게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것은 백야전사 작전 당시 잡혀온 빨치산 포로들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중공군을 잡으면 제일 먼저 온몸에 DDT를 뿌려주는 것이 일처럼 돼 있었는데 이는 나중에 빨치산 포로들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이현상의 4지대도 속리산에서 호남·지리산지구의 빨치산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 병을 만났다. 그것이 세균전의 결과였다면 미군은 한반도 남단부터 37·38도선까지 일거에 배양한 세균을 살포했어야만 하고 그에 앞서서 남한 전역 주민들에게 예방약을 배포했어야 한다. 그러한 사실은 없었으며 심지어 최전선에 있던 우리 사단에도 그러한 예방약이 보급된 일이 없다.”

77) 和田春樹, 『朝鮮戰爭全史』, 359쪽.

78) 라주바예프, 『6·25 전쟁보고서』 1권, 268쪽.

## 5) 보급기지 없는 전쟁

이는 곧 탄약 없는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전쟁도 먹어야 가능하다. 굶주린 창자를 움켜쥐고 총을 쏘고 전진하거나 후퇴할 수는 없다. 유격대원들은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급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 군경과 싸워야 하는 고립무원의 용사들이었다. 처음에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자진해서 제공하는 보급품으로 연명할 수 있었으나 군경의 단속이 심해지자 몰래 훔쳐와야 했고 나중에는 강제로 탈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쪽 국민들로부터 빨치산 투쟁의 당위성이나 이념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함으로써 보급품 조달은 벽에 부딪혔다. 일제강점기 항일독립군처럼 동포들이 자진해서 제공되는 보급품이 있을 수 없었다.<sup>79)</sup> 그러므로 빨치산 투쟁은 불가능하게 되고 궤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 6) 불리한 자연적 여건

한반도는 온대지방으로서 4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강산이다. 그러나 산속에 은신하여 생활하고 싸워야 하는 빨치산들에게는 이 아름다운 강산이 원망스럽기만 했다. 모든 산야의 수목들이 잎사귀를 떨어뜨리며 옷을 벗게 되면 봄까지 빨치산들의 은신처는 노출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에는 발자국이 남아 더욱 쉽게 드러났다. 또한 겨울이면 추위와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빨치산들이 은신하면서 자유롭게 투쟁할 수 있는 기간은 수목이 우거진 늦봄부터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초가을까지다. 한국군 측에서도 ‘낙엽이 지고 눈이 쌓이는 겨울철을 빨치산 공격의 최적기’로 삼고 있었다.<sup>80)</sup>

79)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은 생명을 건 동포들로부터 자진해서 공급해주는 보급품 때문에 항일투쟁이 가능했다. 예를 들면 겨울에 산야가 눈에 덮이면 동포들은 쌀과 감자와 옷과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묻어놓고 막대기를 세운다거나 흙덩어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암호를 삼아 연락했던 것이다(2003년 7월 6일, 연변대학교 김춘선 증언).

80) 백선엽, 『길고 긴 여름 날—1950년 6월 25일』, 230쪽.

## 7) 변절한 전향자의 배신

경찰은 생포된 빨치산들로 하여금 전향하고 변절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 즉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편성된 ‘사찰유격대’ 이른바 ‘보아라부대’를 앞세워 지난 날 동지들의 거점을 공격토록 했다.<sup>81)</sup> 체포된 대원들이 변절과 배신을 거듭하면서 동지시절 익혀둔 눈길과 솜씨로 아지트를 기습하고 연락루트를 가로막은 채 정면에 나타나 공격하는 최대의 적으로 등장한 것이다.<sup>82)</sup>

81) 본래 ‘보아라부대’는 귀순 빨치산들로 구성된 빨치산 토벌부대였다. 다시 말하면 보아라부대는 산에서 내려온 빨치산이 신분을 바꾸어 빨치산을 토벌하려 다시 산으로 들어가는 부대로서 1951년 10월 12일, 남원에 위치한 지리산지구 전투경찰사령부 안에 신상목 사령관의 직속 공비토벌 부대로 창설된 후 1953년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존속했었다. 창설당시 부대장 문순목을 비롯하여 38명으로 출발했었다. 한때는 150명까지 증원된 적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40명선의 부대였다. 부대원은 경찰관의 신분으로 각자에게 계급이 부여되었다. 부대장은 경감, 소대장은 경사, 부대원은 순경 계급이었다. 보아라부대는 사령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사령부의 보아라부대가 성과를 크게 올리자 예하 각 경찰도벌대에서는 사령부 ‘보아라부대’를 모방하여 귀순자로 편성된 토벌대를 조직하여 ‘사찰유격대’, ‘승리부대’ 등 별도의 부대를 운영했으나 일괄하여 ‘보아라부대’라 호칭함으로써 보아라부대가 각지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신기남, 『빨치산 토벌대 ‘지리산 보아라부대’』, 390-395쪽).

82) “각 경찰서 단위로 또 전투경찰대 단위로 조직돼 있던 사찰유격대의 활동은 눈부신 것이었다. 생포돼 전향한 빨치산들로 구성된 사찰유격대는 빨치산들의 생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지트를 찾아내고 길목에 매복할 수 있었다. 이들 사찰유격대원들은 새 삶에 대한 담보로 일정한 ‘성과’를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층 토벌작전에 열을 올렸다”(백선엽, 『實錄 智異山』, 352쪽). 특히 전남의 사찰유격대 중 ‘보아라부대’가 맹위를 떨쳤다. 1951년 3월 백야산에서 군경에 쫓겨 모후산으로 이동하던 도당 본부가 사찰유격대인 ‘보아라부대’에 노출돼 많은 대원들을 잃었고 1952년 가을 도룡 앞 보를 건너던 모후산지구 유격대원 150여 명이 전멸에 가까운 큰 타격을 입은 것도 이들 때문이었다(JKH 증언).

## 7. 맺음말

‘프롤레타리아 해방’이라는 혁명적 이념을 수행하기 위해 공산주의자가 되어 한국전쟁 당시 남으로 내려왔다가 북행 길이 차단돼 산악지대로 들어가 빨치산이 된 사람들, 대한민국과 공존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를 갖춘 이들은 현대식 무기로 무장한 한국군과 경찰병력의 대대적인 공세, 채귀열병이라는 세균과의 싸움, 운신의 폭을 극도로 제약하는 4계절이라는 자연의 섭리, 보급품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생존위기 등 극한적 상황과 싸워야 했다. 빨치산들은 이러한 악조건을 극복하지 못해 끝내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오직 조국통일과 인민해방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이들은 끝내 생포돼 전향이나 변절이라는 불운을 맞지 않고 차라리 군경의 총탄에 맞아 “김일성 동지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영광스럽게(?) 숨져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기도 하다.

1950년부터 1954년까지, 빨치산에 대한 군경의 토벌작전 결과는 빨치산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빨치산 투쟁은 분단된 남북의 이데올로기 갈등에서 빚어진 한국전쟁의 부산물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민족분열의 비극을 표출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북쪽 체제는 인민해방과 민족통일이라는 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성전(聖戰)이라고 강조하고, 남쪽 체제는 침략을 벌이는 공산주의에 대한 당연한 응징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필연적 방어전쟁이라고 역설한다. 양쪽 주장이 모두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한국전쟁은 물론 빨치산과의 피어린 전쟁은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2003년 4월 5일 낮 12시, 백운산 자락인 한재(852.6m)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빨치산 생존자와 이에 관심 있는 젊은이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앞서 숨겨간 빨치산들의 추모제가 열렸다. 그동안 숨죽여 살아 왔던 이들은 광주에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마산에서 모여들었다. 냉전논리에 시달리던 20세기까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만큼 세상은 바뀌어 있었다. 화해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이제 우리 역사에서 민족상잔의 비극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도 남쪽에서 벌어졌던 빨치산의 역사도 극명하게 규명되어 화해와 통일의 밑거름으로 삼

아야 할 것이다.

주제어: 한국전쟁(6·25), 9·28, 빨치산(유격대), 조선로동당, 전라남도당, 한국군, 인민군, 지구, 투쟁, 토벌, 백아산, 백운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박영발, 김선우

times. In short, belief in Catholicism was in itself a seriously growing indictment of *yangban*(兩班) society and of the values it cherished.

**Keywords:** Catholicism, *Choson Ilbo*, *Tonga Ilbo*, Neo-Confucianist orthodoxy, creed of equality, the social and political order

### The Rebuilding and Collapse of the Communist Partisan in South Korea

Kim, Yong-taek

On October 5th 1950 when both Koreas were still at war, the South Cholla province district party chapter of Chosun Labor Party gathered at Yonggogri Bukmyon, Hwasoon county of South Cholla province and Baek-a mountain area the troops of the People's Army and the party agents who fell behind as their retreat was cut off due to the success of Inchon landing operation of the South Korean troops and the United Nations' Army. And they established the general headquarter of the Chosun People's guerrilla unit. That is, the regular army of the North Korea(the People's Army) formed the guerrilla unit in association with local leftists. Moreover, the province district party chapter set up six district operational bases at Gwangju(Mudeung mountain), Noryung(Chuwol mountain), Youchi(Youchi naesan(inner-mountain)), Bulgap mountain, Mohu mountain, and Baekun mountain respectively in order to command various guerrilla units and branch offices of the Party. The headquarter ordered every partisan unit to raise guerrilla wars all over the province. They cut off the supply route of the police and the troops, attacking police stations, trains and cars,

plundering towns of food, destroying communication facilities, assassinating and assaulting prominent people of right-wing groups.

It was as urgent a problem as combat at the front line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mop them up. As a resul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rganized the special units to be mandated to carry out the clean-up operation of guerrillas and dispatched them to all over the country. They were 3rd Army Corps, the Baekya combatant unit, the Bak combatant unit and the Han combatant unit. South Cholla Province was subjected to the operation without exception. The Baek-a mountain and six district operational bases were the major target of the attack. It was impossible for guerrillas to keep off the concentrated attack of the South Korean troops and police that were equipped with the latest types of weapons and sufficient supplies replenished by the United states. What is worse, the guerrillas suffered from the lack of supplies, the epidemic of recurrent fever, disadvantages arising from geographical position and natural condition and treachery of their colleagues.

In the spring of 1954, the nation-wide operation to liquidate red guerrillas began. In the process of the operation, the South Cholla province district party chapter at Baekun mountain, the general headquarter at Baek-a mountain and all the other six district operational bases were subdued. A lot of agents of the Party and guerrillas were arrested or shot down to death thereafter. Although few guerrillas continued fighting for some time, all of them were killed or captured before the spring of 1955.

**Keywords:** Korean-war(6·25), 9·28, Partisan(Guerrilla), Chosun Labor Party, Chonnam Labor Party, People's-troops, Jigu(Branch), Baek-a mountain, Baek-oon mountain, Park yung-Bal, Kim Sun-oo